

도내 종합건설사 실적 전년대비 15.4% 증가

공공공사 물량부족 극복 주택건설 등 전략 투자 기인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종합건설 회사 509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도 건설공사 실적을 지난 15일까지 접수받은 결과 503개사가 신고했으며 총실적금액은 전년대비 15.4%(5,362억 원) 증가한 4조389억 원으로 집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같이 전년대비 실적신고 금액이 상승한 것은 공공공사 물량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주택 및 민간 건설 등의 전략적으로 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년도 대비 신고업체수가 503개사로 작년 대비 29개사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종합건설업의 수익분기점(토건업체 기준)인 50억 원 미만의 업체

비율은 전년 62.7%에서 68.4%로 증가했고 미실적사와 미신고사는 16개업체로 전년 대비 3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도내 실적 1위는 계성건설(주)로 공공주택(이즘 브랜드) 건설 등 민간 건설 수주에 힘입어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고 (주)신일이 타지역 민간주택사업 수주 실적으로 2위, 3위는 꾸준한 아파트 건설(오투그랜드 브랜드) 실적의 제일건설(주)이 차지하였으며, (주)신성건설 4위, (주)군장종합건설 5위를 기록했다.

그 외에도 새롭게 50위권대로 (주)신원건설(11위), (주)수호(13위), 덕유엔지니어링(주)(20위), (유)무왕건설(24위), 세한건설(주)(26위), (주)심화건

실사(30위), (유)유백건설(31위), (유)승명종합건설(36위), 영륙건설(주)(40위), (유)한미종합건설(41위), (주)리드(43위), 부일건설(주)(44위), 광진건설(주)(45위), (주)태준건설(46위), (주)동부건설(47위), (주)금정건설(48위), (주)승진종합건설(49위), 푸른건설(주)(50위)이 진입했다.

윤방섭 회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와 세계적 물가상승에 따른 자재 수급난 등 어려운 건설 환경 속에서 타지역의 민간 건설시장의 진출 등의 자구책 마련 결과로 실적이 15.4% 증가했다"며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와 더불어 종대해법 시행 등 건설수주 환경이 녹록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므로 발주관서의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지역 건설사의 육성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대희 기자

지난해 전문건설공사 기성실적 5.7%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임근홍)는 지난 15일 완료한 '2021년도 전문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에 도내 2,790개 전문건설업체가 접수했으며 기성실적신고 총액은 2조5,809억원으로 집계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2020년 기성실적신고액 대비 5.7% 증가한 금액으로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서 경기불황과 이로 인한 국내 건설경기 극심한 침체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됐으나,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전라북도과 전주시의 하도급전담부서의 지역 전문건설업체 홍보활동 및 대형건설사 본사와 현장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제고를 위한 꾸준한 세일즈활동의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전주시

관내 대형건설현장 하도급률이 증가한 것도 실적 증가로 이어졌다.

도급 형태별로는 원도급 공사가 1조 33억 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39%를 하도급공사는 1조5,766억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대 별로는 무실적 업체가 138개, 10억원 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2,125개, 30억원 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379개, 50억원 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74개, 100억원 미만을 신고한 업체는 43개였다. 100억 원 이상의 실적을 올린 업체는 전년 대비 7개사가 증가한 31개 업체로 집계되었으며, 이 업체들의 하도급금액이 전체 하도급 기성액의 36%(5,781억원)에 달해, 관내 대형건설현장에서의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이 증가해 기성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액 2조5809억원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임근홍 회장은 "감염병과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불안한 경제상황속에서 지난 한해 도내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신 회원사의 노력이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에도 전라북도와 전주시 하도급전담부서와 유기적인 업무공조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전문건설업 활성화와 지역건설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내 업체 중 기성신고액 1위는 482억원의 신고한 반석중공업(주)(대표 김명환)이 차지했고 (주)유림개발(대표 최영진)이 391억원으로 2위를 (유)정강건설(대표 김문수)이 3위(372억원), (유)원진알미늄(대표 원경의)이 347억원으로 4위, 금산건설(주)(대표 송문근)이 5위(334억원)를 차지했다.

/최대희 기자

'디지털 봉군관리'로 양봉산업 최신 정보 공유

농진청, 오늘까지 학술대회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한국양봉학회(회장 이만경), 안동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소장 정철의)와 함께 '디지털 봉군관리'를 주제로 16, 17일 양일간 경남 거제에서 동계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의 취약성 분석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제 대응 연구에 이르기까지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양봉산업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이상기온으로 문제 되고 있는 꿀벌 질병 원인파 진단법(경기대 윤병수 교수) ▲열악한 생존환경에서

의 꿀벌의 행동 특성(중국 신둥농대 Wang Ying 교수)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꿀벌 모니터링 시스템(인천대 최병조 교수) ▲꿀벌 질병 제어기술(미국 농업연구청 꿀벌연구소 Jat D. Evans 박사) 발표가 이어진다.

국내 양봉관련 연구자들이 '꿀벌 육종과 생리 생체', '시양 관리와 병해충', '밀원 확보', '양봉산업' 등 4개 분야에 걸쳐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학술 발표도 진행된다.

농진청은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자, 양봉 관련 단체, 농가가 연구성과의

빠른 현장 적용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데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이승돈 부장은 "기후변화의 일상화와 벌꿀 개발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와 우리 양봉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정보 교류, 상호 협력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7월 양봉생태과를 신설해 양봉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대희 기자

중기중앙회, 금융위에

'대출만기 추가연장' 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제출한 건의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직면 둔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대출 금액은 급증하는 등 고용 위축, 경영여건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대출 증가가 급증하고 있으며 만약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된다면 대부분 업종에서 DSR(원리금 상환 비율)이 상승해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다수의 한계기업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최대희 기자

이주현 전북조달청장, 혁신시제품 지정 업체 현장방문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16일 익산시에 소재한 혁신시제품 지정 업체인 예코로드 주식회사(대표 윤종경)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본 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21년도 제4차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예코로드 주식회사의 '원추형(아광)반사경계석'은 원추형 초고휘도반사체와 중앙원형반사체 작용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시인성을 확보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빗물 유도부의 빗물로 먼지 등 이물질들을 세척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은 국민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수요기관에서 먼저 제시하고 선정된 과제를 해결한 혁신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자체예산으로 구매 후 테스트용 제품으로 납품, 기술력이 인정될 경우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주현 전북조달청장은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판삼아 한 단계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술력 있는 혁신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 등 적극행정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16일 공단 본부 국민누리관에서 국민연금나눔재단 개소식을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증 카드기금 활용 지속 사회공헌

국민연금, 나눔재단 개소식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6일 공단 본부 국민누리관에서 국민연금나눔재단 출범을 알리기 위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김용진 이사장과 국민연금나눔재단 김진일 이사장 및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주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축하를 전했다.

국민연금나눔재단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설립됐으며, 이번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재단은 ▲미래가입자에 대한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있는 장학지원' ▲저소득가입자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희망드든 연금보험료 지원' ▲취약계층 연금수급자를 위한 '바람직한 사회봉사' 등 기존 공단 수행행정부지사, 김용진 이사장과 국민연금나눔재단 김진일 이사장 및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주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축하를 전했다.

국민연금나눔재단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설립됐으며, 이번 개소식을

중 확대되어 다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3개 카드사 및 하나은행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나눔재단 김진일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해 온 사회공헌 활동을 기반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실현을 위해 국민연금나눔재단의 지속적인 도움을 손길 기대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유호성기자·최대희 기자



노출혈 응급환자 구한다 SKI(주) C&C 윤동준 Healthcare그룹장이 16일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황인홍 군수와 공공의료서비스 신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뇌전신환다중촬영(이하 CT) 영상판독을 위한 인공지능(이하 AI) 솔루션 지원과 임상적 활용에 동의했다. <관련기사 9면>

익산농협, 자재사업 연도대상 '최우수'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중앙회의 2021년 자재사업 연도대상에 익산농협(조합장 김명욱)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익산농협은 2021년 전년대비 28억원이 증가한 162억원의 비료, 농약 등을 매입했으며 이중 145억원을 계통계약함으로써 90% 수준의 높은 계통이용률을 기록해 영농자재 가격 안정화 및 농업인 실익증대에 기여했다. 이번 평가에서 익산농협은 전국 62개 농협이 속한 그룹에서 자재사업 추진 최우수 농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정재호 본부장은 "범 농협 영농자재 구매사업 가격 교섭력 제고를 위한 계통 이용에 감사를 전하며, 농업소득증대를 위해 임미칠근(一米七斤)의 자세로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명욱 조합장은 "코로나19 속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협을 전이 용해 주신 조합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가격의 영농자재를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초우량 농협(총 자산 1조 이상)으로 올해 첫발농산물 맞춤형 매장 형태로 송화창고마트 개점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소득 작목인 친환경 곡 재배 면적 확대를 통해 떡 방앗간 사업활성화 등 생산 가공 유통 전문농협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윤성기자

농지원부, 필지 단위로

4월 15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원부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절차가 모두 완료돼 오는 4월 15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에 반영된 농지원부 개편 주요 내용은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헥타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 등이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해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을 농지 대장으로 변경하는 조차와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내용은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에게 우편 안내, 홍보물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내용과 취지를 안내하고 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개편 조치를 통해 개별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 현황 및 이력 관리가 쉬워지고, 작성·관리 주체를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앞으로는 서류 발급 기간도 단축되는 등 농지관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안착과 더불어 국민이 전국의 농지와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희기자